

8/6/23

설교 제목: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2 장 1-10 절

(엡 2: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 2: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엡 2: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엡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절관주** 엡 1:3, 엡 3:10

(엡 2: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관주** 롬 3:27, 고전 1:29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장에서 교회 곧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성취를 위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교회 곧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피 흘려주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공간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 모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모은 사람, 또는 그들의 무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 받은 성도, 또는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아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화염검을 두어 다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함께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 이 생명 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짊어진 불쌍한 존재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정당한 근거없이 죄인된 인간을 다시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하여 인간의 죄를 없앨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엡 2: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 2: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을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3:10) 기록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롬 3: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3: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롬 3: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롬 3: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롬 3: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롬 3: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롬 3: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이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사망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노의 자녀가 되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 난 인간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엡 2: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복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당신의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만세 전에 예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사건이 있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3:15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뱀으로 인해 범죄한 사실을 아시고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을
저주하십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곧 사탄을 멸망시켜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탄을 정죄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일어난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길로 인해 불평을 하였습니다.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뱀을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해 주셨습니다.

(민 21: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 21: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 21: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자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엡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 3: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기에 그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빌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으니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참고로 다소는 대륙과 해상의 교통을 연결하는 동서 교통의 요충지이며 무역이 활발했고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또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진실로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득권들을 미련없이 던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엡 2: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댓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세에 당신의 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지극히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감사가 클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히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소식은 세세에 전해지고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의 사명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빛진 자들입니다.

빛진 자답게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갠고자 하는 마음 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빛진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뻔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음 받은 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